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3. 13.(수) 11:00 < 3.14.(목) 조간 > 배포 2024. 3. 13.(수)

첨단특화단지 조성 및 투자 현황 점검

- 약 70조 원 투자 정상 진행 중, 지자체는 특화단지 전면 지원 계획 밝혀 -
- 3월 말 발표될 「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」 마련을 위한 지자체 의견수렴 -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성공과 674조 원의 기업투자 지원을 위해 지자체, 관계부처, 기업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 이에 산업부는 특화단지 지정 지자체, 기재부·국토부·환경부 등 관계부처, 한전·수공 등 관계 기관과 함께 3.13.(수)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「특화단지 범부처 지원협의체」를 개최했다.

* 참석자 : (지자체) 경기도·충북도·충남도·경북도·울산시·전북도, (관계부처) 산업부·기재부·국토부·환경부·국조실, (관계 기관) 산업기술진흥원·한전·수공·산단공

오늘 범부처 지원협의체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업투자 진행 상황과 특화단지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, 개별 지자체의 특화단지 육성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. 협의체에 참석한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현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약 70조 원의 투자가 정상 착수된 것으로 나타났다. 오늘 협의체에 참석한 6개 지자체는 지자체별 「특화단지 육성계획」 발표를 통해, '23~'24년 1,439억 원의 국비 지원과 함께 지자체 예산도 투입하여 특화단지 내 전력·용수 등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하겠으며,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, 저금리 융자 지원방안 마련 등 첨단 생태계 조성 지원에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. 또한, 지자체는 청년 근로자 기숙사 건설(구미), 특화단지-신도심 연결도로 확장(천안·아산)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, 전력 설비 개발행위 허가 신속화(포항) 등 기업의 규제 부담을 지속 완화함으로써 개별 특화단지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.

오늘 협의체에서는 3월 말 발표가 예정된 「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」에 대한 지자체의 제안도 이루어졌다. 협의체는 전력·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지원 확대, 환경·부지 관련 규제 해소, 투자 인센티브 추가 확충 등 지자체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했다. 협의체에 참석한 관계부처와 기관들은 해당 제안을 최대한 신속히 검토하여 종합지원방안에 반영하기로 하였다. 강경성 1차관은 "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성공에는 정부-지자체-기업 삼각편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"며, 정부는 「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」을 통해 세계 최고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삼각편대의 노력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	책임자	과 장	이규봉 (044-203-4270)
		담당자	사무관	유소영 (044-203-4275)
	전력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	책임자	과 장	정승혜 (044-203-3930)
		담당자	서기관	장영빈 (044-203-390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